

코리아타임스 창간 53주년 축하 메시지

코리아타임스 창간 5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께
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4개월 뒤에 창간한 코리아타임스는 전쟁의 참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53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
상과 민주화 과정을 외국인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엄혹
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필봉을 굽히지 않고 한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세계에 알
린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시각각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학
습에 관심이 많은 국내 독자들로부터도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
리는 창(窓)으로서, 가장 연륜이 깊은 영자지로서 코리아타임스가 이룩해 온 공
로는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시대입니다. 개방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함

니다. 우리는 역내 국가와의 지역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흐름에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계에 손색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코리아타임스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논평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밝은 앞날을 열어 가는 데 더욱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창간 53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코리아타임스의 무궁한 발전과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